

현대모비스, 장애 인식개선 동화책 배포

현대모비스가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공공어린이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 2450 곳에 장애 인식 개선 동화를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4년부터 장애 아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 인식 개선 도서 시리즈 '함께하는 이야기'를 발간해 지금까지 1만권의 동화책을 배포했다.

올해 발간한 동화 '학교잖아요?'는 새로 지은 아파트 옆 공터에 대형마트 대신

특수학교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갈등을 겪는 동네 주민들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내건 '특수학교 설립 반대' 현수막의 '반대' 글자를 '한대'로 바꾸는 감작한 계획을 실행해 옮기며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당당히 교육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그린다.

/정연우 기자



이마트, 자원순환 캠페인 전개

이마트가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캠페인 10주년을 맞아, 2019년 점포내 일회용 비닐/플라스틱 사용량 50% 감축에 나선다. 이마트는 2019년 안으로 롤비닐 비치장소와 비치량을 줄여 사용량을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시킬 방침이다. 이마트 자원순환 캠페인을 기념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 네번째), 이갑수 이마트 사장(왼쪽 세번째), 정환성 이마트 성수점장(왼쪽 두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마트

현대약품 제 115회 아트엠콘서트 '신년음악회'

현대약품이 오는 19일 오후 3시 아마하 뮤직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제 115회 아트엠콘서트 '2019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년음악회의 주인공은 클래식계 어벤저스라 불리는 'Club M'으로 피아니스트 김재원, 바이올리니스트 김덕우, 비올리스트 이신규, 첼리스트 심준호, 오보이스트 고관수 등 국내외 최정상급 실력과 아티스트들로 이뤄진 팀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브람스의 생애 마지

막 작품인 인터메조 118번, 서정적인 선율의 아우구스트 클룩하르트의 5개의 갈대밭의 노래, 현악 2중주로 편곡한 헨델, 할보르센의 파사칼리아, 벤저민 브리튼의 오보에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한 환상곡,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까지 풍성한 스트링과 오보에, 피아노로 구성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 줄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경동나비엔, 美 2019 AHR EXPO 참가

경동나비엔이 북미시장을 추가 공략하기 위해 고삐를 단단히 죄고 나섰다. 경동나비엔은 지난 14일부터 16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아틀란타에 위치한 조지아 월드 콘그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최대 냉난방 설비 박람회 '2019 AHR EXPO'에 참가해 콘덴싱보일러와 온수기 제품 등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경동나비엔



하이트진로, 아이린과 함께한 참이슬 광고 공개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모델 아이린과 함께 새로운 광고를 제작하고 마케팅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광고캠페인은 '소주는 깨끗하다 - 이슬같은 깨끗함, 참이슬'이라는 슬로건 아래 참이슬 본연의 '깨끗한' 맛과 이미지를 강조, 오월부터 IPTV,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별 볼일 없는 하버드 출신?



진성우 소장의 심리학예

몇 년 전 필자는 친구가 CEO로 있는 회사의 연구 담당 책임자로 2여년 정도 일을 했다. 일종의 유전자 분석회사였는데 의대를 졸업하였으나 의사 생활을 접고 의료 관련 사업을 하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관련 업무로 일을 했다. 그때 지인의 회사에서는 두 명의 외국 명문 대학 출신의 직원이 있었다.

한 명은 하버드 대학 MBA출신이었다고, 또 한 명은 코넬대 MBA 출신이었다. 한 친구는 우수한 성적 때문인지 대학원까지 조기 졸업한 뒤 취직하였으며 한 친구는 외국 회사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애널리스트 일을 하다가 어떤 인연으로 지인 회사에서 일을 한 것이다.

필자 주위에도 외국 유학한 후배들이 몇몇 있어 대학의 외국 분위기는 알고 있었지만 세계에서 톱 수준에 들어간다는 미국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들의 인재들과 일을 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나름 호기심이 많았다.

그들에 대한 첫 일을 한 느낌은 '뭉 별

거없군...'이었다. 외국대학에서 졸업을 했으니 영어 같은 언어 능력 말고는 그냥 한국의 일반적인 대학 출신 직원들과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물론, 이 직원들을 내가 너무 높게 평가한 부분도 있다. 그러다가 직접 부딪혀 경험해보니 '대단한 인재들은 아니네'라는, 실망감 같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같이 일했던 한국 대학을 나온 직원들과 몇 가지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그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내적인 열등감이 없어 보였다.

특히 회의나 비즈니스 논의 중에 보이는 모습들은 자신이 가지는 프라이드가 어떻게 간에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타인의 의견과 비판을 잘 구분하고 거기에 감정적인 반응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모습이었다.

자신이 어떤 대학 어떤 과 출신인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눈에 띄지 않고, 모르면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이야기 하면서 타인의 말도 감정적이나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일을 하기 매우 편한 느낌을 받았다. 다시 말해, 자신이 모르면 물어보고 힘들면 해결책을 같이 논의하

면서 방법을 찾는 것이고, 간혹 열등감을 느낄 만한 상황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소한 것 때문에 본질을 흐리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라는 것을 느꼈다. 물론, 그들을 대하는 주변의 태도도 매너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인성적인 요소가 작동하는 듯하였다.

지나치게 개별적이며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적어도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을 하는데 있어 인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함의하는 바가 크다. 성숙된 사회성을 가진 어른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측면이지만 이러한 어른스러운 실제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갖기가 쉽지 않다.

한편으로 젊음이 가지는 유연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그 친구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변할지는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기는 하다.

AI와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과 관련되어서 해야 할 일들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인성과 인간성이 아닐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당신의마음연구소 소장

동국제강, 초중고교생 대상 장학금 신설

올해 90명에 4500만원 전달 예정

동국제강과 산하 송원문화재단은 올해부터 초중고 학생 대상 장학금을 신설하며 장학 사업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송원문화재단은 부산지역에서 협약을 맺은 5개 고등학교 학생과 부산남구 지역 복지센터에서 선발한 초등, 중등생 포함 총 90명의 학생에게 올해 4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동국제강은 지난 2004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역시 9개 대학 14명의 이공계 대학생에게 총 1억6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송원문화재단은 16일 경북·울산 지역에서 선발한 5명의 이공계 대학생들을 포함공장에 초청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15일에는 부산공장에서 장학금 전달



동국제강은 16일 최삼영 포항공장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과 산하 송원문화재단 정복용 사무국장(앞줄 오른쪽 첫 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송원문화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공계 대학생 5명을 포함공장으로 초청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국제강

식을 진행했으며 이후 17일에는 당진공장, 21일에는 인천공장 순으로 각 지역 이공계 3학년 학생 총 1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장학생 전원에게는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졸업 후 동국제강 취업

희망 시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장학생 개인에게는 같은 학교 출신의 동국제강 임직원을 멘토로 지정해 현업에서의 실무 소개 등 향후 진로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인사

- ◆ 한국교직원공제회 ◇ 1급 승진 △ 금융투자부장 한양식 △ 정보시스템부장 김철오 △ 기업금융부장 고재택 △ 부산지역본부장 김재구 ◇ 2급 승진 △ 대체투자부 대체투자3팀장 오상원 △ 미디어소통부 홍보기획팀장 이병민 △ 전라북도지부 사무국장 정태영 △ 정보시스템부 IT운영2팀장 정창규 △ 감사실 감사팀장 이동현 △ 부산광역시지부 사무국장 김상진 ◇ 1급 진보 △ 미디어소통부장 김정태 △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조규백 △ 보험사업부장 박중배 △ 경영전략기획실장 전영봉 △ 경영지원부장 이미경 △ 대구지역본부장 임익순 ◇ 2급 진보 △ 경기도남부지부 사무국장 정성욱 △ 보험사업부 계약관리팀장 권진현 △ 정보시스템부 IT기획팀장 김홍진 △ 보험사업부 영영기획팀장 박형석 △ 미디어소통부 미디어운영팀장 윤석완 △ 회원복지부 문화복지팀장 오진봉 △ 보험사업부 기획계리팀장 문대원 △ 사업운영부 사업체지원팀장 염홍필 △ 경영지원부 인력개발팀장 이상목 △ 경영지원부 재무관리팀장 박충훈 △ 정보시스템부 IT운영1팀장 심광업 △ 대체투자부 대체투자2팀장 이재창 △ 금융투자부 해외금융팀장 송상훈 △ 기업금융부 기업금융1팀장 류영학 △ 공제사업부 수납관리팀장 박기원 △ 경기도북부지부 사무국장 서근택 △ 회원복지부 고객지원팀장 신동현

- ◆ 동양생명 ◇ 승진 △ 투자팀장 오예규
- ◆ 라인건설 ◇ 주택문화본부 부사장 김용원 △ 협력관리본부 이사대우 이석현 △ 경영지원본부 이사대우 오성민
- ◆ 한국환경공단 ◇ 신규 임용 △ 감사 유성찬
- ◆ 한국장학재단 △ 상임감사 김준배
-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스마트시티과장 고철원 △ 청라관리과장 조병혁 △ 도시건축과장 김정호 △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 기획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규호 △ 공보문화과장 직무대리 서윤기 △ 투자유치기획과장 백종학 △ 운영지원과장 정형섭
- ◆ 제주대학교 ◇ 사무관급 △ 총무과장 강병근 △ 국제교류본부 행정실장 강철승 △ 공과대 이창기 △ 해양과학대 서영진 △ 인문대 강태영 △ 생명자원과학대 고태규
- ◆ 소년한국일보 △ 콘텐츠 제작과장 박성태

부음

- ▲ 이철만씨 별세, 이연성·주영·기영(영우디지털 부장)씨 부친상, 정해봉(SK브로드밴드)·탁용원(아프로서비스그룹 홍보담당 임원 겸 OK저축은행 프로배구단 단장)씨 장인상 = 16일, 일산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031-900-0444

- ▲ 최순애씨 별세, 박동식(서울노원중 교사)·도식(자영업)씨 모친상, 강건택(연합뉴스 차장대우)씨 외조모상 = 16일 오전 3시 30분, 서울 한일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070-4888-1694
- ▲ 강옥순(가말리)씨 별세, 김미숙(경기방송 KF M 미디어 대표)씨 모친상 = 15일 오후, 당진장례식장 무궁화 특1호실, 발인 18일, 041-354-4444
- ▲ 정중희씨 별세, 김한근(부경근대사료연구소장,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 콘텐츠자문위원)씨 모친상 = 15일, 부산전문장례식장 103호, 발인 1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연락공원, 051-312-4444
- ▲ 정갑순씨 별세, 공영도(금융감독원 자금세탁 방지팀장)·공영근(한국수력원자력 조직개발팀장)·공정해·공미숙·공남희씨 모친상, 류경배·송성근(대명여고 교사)·장원만(경희태을한의원장)씨 장모상 = 15일, 부산인창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30분, 051-464-5858
- ▲ 이분남씨 별세, 김명환(KBS대구방송총국 앵커)씨 장모상 = 15일, 울산 영락원 302호, 발인 17일 오전
- ▲ 전순란씨 별세, 조현희(회사원)·현구(농업인)·현창(영남일보 제작국 차장)·현석(경북일보 뉴미디어국장)·현동(경안산업 대표)씨 모친상 = 15일 오후 4시, 안동병원 장례식장 2분향실, 발인 17일 오전